

이용재의 잡문 노트

이름만큼 춥지 않은 나라, 아이슬란드

이용재 (칼럼니스트)

얼마 전 아이슬란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다. 비옥(Biörk)이나 시규어 로스(Sigur Rós)와 같은 뮤지션으로 인해 예전보다 낮익다고 생각하는 나라지만, 그대로 지도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먼 나라다. 인천에서 런던,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까지 약 열 시간 남짓 더 날아간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고 지루한 비행을 세 시간 남짓 더 견뎌내야만 한다. 케블라비크 국제 공항에서 수도인 레이카비크 도심까지 버스로 약 한 시간이 걸리니, 최소 서너 시간은 되는 비행기 환승 시간까지 따졌을 때 거의 하루에 가까운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 셈이다.

아이슬란드는 최근에도 화산 활동으로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으며 지진활동이 활발하고 매년 1cm씩 좌우로 늘어나고 있는, 상대적으로 어린 땅이다. 이러한 특성을 십분 활용해 지열을 이용한 난방을 하므로 찬물을 쓰기가 더운물 쓰기보다 어려울 지경이다. 한편 10만 3000km²의 면적에 약 32만명이 살고 있어 유럽에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인데, 총 인구의 1/3 가량이 수도인 레이카비크에 몰려 있다. 8세기까지 무인도였으나 9세기 경 노르웨이에서 아일랜드의 노예를 데려와 정착한 것이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18년까지는 노르웨이를 거쳐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918년 덴마크의 자치령이 되고, 1944년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아이슬란드’라는 이름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곳의 날씨가 엄청나게 추울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 이름 또한 정착을 시도했던 노르웨이인이 데려온 가축을 추위에 다 잃은 뒤 얼음으로 덮인 피요르드를 보고 좌절에 빠져 붙인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기온은 이름이나 위치만큼이나 춥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여름철이면 비행기로 다다를 수 있는 근처의 그린란드가 이름에 비해 훨씬 추운 땅이다.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가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인데, 덕분에 가장 춥다는 겨울철에조차 아이슬란드의 최저 기온

은 영하 3~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연교차가 적고 1년 내내 저기압이 형성되므로 날씨의 변화가 심해 안개가 끼거나 흐린 날이 많다.

이러한 기후 덕분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아이슬란드의 전통 음식은 허브나 향신료의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조금 과장을 보태 세계 10대 과식 가운데 하나로 손꼽는 대표 음식 ‘hákarl(아이슬란드어로 ‘상어’)은 그린란드 상어의 고기로 만드는데, 날로 먹을 경우 유독한 요산 성분을 빼기 위해 모래에 파묻어 6~12주 동안 발효시킨 뒤 여러 달 동안 말려 완성한다. 그래도 흥어나 상어류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암모니아 냄새로 인해 엄청난 용기를 가진 자도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다는, 또한 일단 넘기고 나면 두리안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는 식품이기도 하다. 한편 반으로 잘라 삶은 양의 머리인 ‘Svið’, 대구 등을 포며 말린 ‘Harðfiskur,’ 호밀빵 ‘Rúgbrauð’ 등, 우리의 입맛에는 딱히 잘 맞는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음식들이 전통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 재배를 통해 확보하고 있지만 슈퍼마켓의 채소나 과일은 이웃 네덜란드를 비롯한 수입산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겨울에도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아이슬란드를 즐기기 가장 좋은 계절은 아무래도 여름인 7, 8월이다. 지열을 이용한 스파인 ‘블루 라군(Blue Lagoon)’이나 고래, 또는 아이슬란드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펭귄의 친척 조류 ‘푸핀(Puffin)’을 볼 수 있는 바다 투어 등이 대표적인 관광 코스다. 한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레이카비크 시내 중심가의 주말 바 문화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원래 아이슬란드의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2008년 국가 부도 사태 이후 회복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예전만큼은 아니니 미리 내년의 여름 휴가를 계획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만 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의 주요 도시를 통한 연계 항공편을 마련하고 있으니 환승 사이의 시간 간격을 포함한 운임을 고려해 선택할 것을 권한다. 🍷

